

Issue Comment

2018. 9. 21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098-6653
kw.eun@meritz.co.kr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전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특례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직접적인 발언이 법안 통과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

비금융주력자 지분 기준 10%(의결권 4%) → 34%로 확대

기존 은행법(제16조의 2)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율을 10%(의결권은 4%)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34%(특례법 제5조)까지 확대 가능.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향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기업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우려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특례법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제한(특례법 제9조) 등을 감안시 기우에 불과.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인가 전통인가?

정부나 언론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창조와 혁신.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는 혁신성장을 위한 1호 규제혁신으로 지목. 그러나 출범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기존 은행권처럼 예대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

특히 출범 전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 도입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고 신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 정책 지속. 실제 2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은 6.8조원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 포함), 신용대출 대비 각각 1.0%, 3.3% 수준까지 침투. 또한 향후 ICT 기업 중심의 자본 확충이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M/S 확보도 가능. 가파른 대출 성장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하며 빠르면 연내 (분기실적 기준) 흑자전환 예상.

은행업이 자본규모에 기반한 레버리지 산업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업무 한계는 분명. 해외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시장 침투율은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출범 초기와 달리 금리와 대출한도의 매력도도 많이 낮아진 편. 은산분리 완화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1) 금리 절벽 구간에 위치한 중신용자에 대한 합리적 대출 금리 제공으로 가계부채의 질 개선, 2) 은행 수신 기능이 가진 강력한 모객력과 I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변화 기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은경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